

『삼국유사』 고구려 관련 기사의 성격에 대한 일 고찰*

하 정 용**

1. 머리말
2. 고구려 관련 기사의 분류
3. 관련 기사의 분포 등에 대한
몇가지 분석
4. 전거의 분포를 통해서 본 원전론
5. 맺음말

1. 머리말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신라적인 사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고구려사를 기술하면서 『삼국유사』를 인용하는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삼국사기』와 함께 『중국정사조선전』 등을 인용하면서 논지 전개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구려관련기사가 매우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아가 『삼국유사』에 소재하고 있는

* 본서는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 고구려사 연구지원사업:KRF-2004-077-A00018).

** 고려대학교 강사(Korea University Lecturer)

관련기사조차도 그 편년설정이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또한 고구려의 국명이나 평양성의 지명 등을 단순하게 거명한 예도 적지 않기에 그 사료적 이용은 더욱 더 적어진 듯하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삼국유사』는 고구려의 역사상을 현대의 우리에게 전하는 현존하는 몇 안되는 서책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삼국사기』 등에 전하지 않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의 또 다른 면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¹⁾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삼국유사』에 대한 원전론의 연장선상에서 『삼국유사』에 대한 통계적인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²⁾. 『三國史記』³⁾에 대한 통계적인

1) 당연한 이야기로 이런 이유에서 『신라유사』가 아닌 『삼국유사』라는 이름으로 서명이 결정 또는 정착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삼국유사』라는 명칭이 일연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조선시대 초간될 때 『삼국사기』와 관련지어 정착된 것인지 등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2) 필자는 이미 『삼국유사』는 일연 한 사람의 작품도 아니며 완성작도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완성작으로 전해지다가 그의 제자 무극도 몇 군데 손보다 다시 후대에 필사본으로 전해져 주로 승려들이 포교자료집으로 보다가 몇 가지 필사해 놓은 것이 조선에 들어와서 1394년에 초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까닭에 일연의 비문에도 무극의 비문에도 『삼국유사』는 기재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선초본 『삼국유사』에는 선초본 『삼국사기』와 달리 고려본의 흔적도 전혀 없다. 동시대의 다른 불교서적이거나 일연찬의 다른 서적에도 권마다 적혀 있는 찬자명이 유독 『삼국유사』에는 권제오에만 있다. 왕력제일 뒤에 서문이 적혀 있으며 조목이나 편목명에도 일관성이 없고 수많은 오탈자는 정말 누가 책임지고 편찬하고 간행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그동안 발표한 몇몇 주요논저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시작한 것은 박사논문이 나온 2002년이 아닌 1998년부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편의상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개별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2002년 이전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분량상 등의 문제로 가급적으로 검토나 제시를 삼가고자 한다.

하정용, 2008. 4. 「日本帝紀와 日本帝記를 통해서 본 三國遺事の 史料批判－延鳥郎細鳥女條와 元聖大王條의 後註를 중심으로 한 原典論－」, 『신라사학보』 12, 신라사학회

河廷龍, 2002. 8. 『『三國遺事』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문학박사청구논문 : 2005. 8. 『『三國遺事』史料批判』, 民族社

河廷龍, 2003. 3. 『校勘譯註『三國遺事』－原本復原을 위한 三國遺事傳』, 時空社

연구가 이미 이뤄진데 비해 『삼국유사』는 체재, 편목, 조목, 분량상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러한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삼국유사』 가운데 실제로 고구려 관계 기사가 어느 편에 그리고 어느 조목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고구려관련기사의 분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삼국유사』의 원전론에 대해서 어떠한 담론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

2. 고구려 관련 기사의 분류

『삼국유사』 가운데 고구려 관련 기사를 찾아서 그 사료비판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관련 기사를 찾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는 기준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틀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표 1>과 같이 편의상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河廷龍, 2001. 9, 「『三國遺事』 諸條目間 關係考」, 『韓國史學史學報』 4, 韓國史學史學會

河廷龍, 1998. 9, 「『三國遺事』最高本の 刊行時期—鶴山趙鍾業所藏古板本을 통한 接近—」, 『史學研究』55·56, 韓國史學會

3) 申澄植, 1981, 『三國史記 研究』, 一潮閣.

4) 최근에 아래와 같이 필자의 견해에 비판적인 견해(金相鉉, 2005, 「『三國遺事』의 讚 연구」, 『동국사학』 41, 동국사학회 ; 金相鉉, 2007. 2,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研究 現況」, 『불교연구』 26, 한국불교연구원)와 함께, 필자의 견해 등에 주목할만하다는 견해(남동신, 2007, 「『三國遺事』의 史書로서의 特性」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견해(박대재, 2009. 2, 『三國遺事』 판본의 몇가지 문제점」 『점교 삼국유사』, 고려대학교 출판부)가 제시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표 1> 고구려 관련 기사의 분류 기준

전거 \ 내용	고구려에 대한 관련성	
	본격적인 내용	단순 열거 또는 거명
있음	A(분주 A')	B(분주 B')
없음	C(분주 C')	D(분주 D')

첫째, 내용 면에서 고구려에 대한 관련성이 본격적인 기사와 고구려 또는 평양성 등 관련 내용을 단순 열거 또는 거명한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그에 대한 사료비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1차적인 내용적인 사료비판뿐만 아니라 그 구성 및 분포의 결과에 따라 『삼국유사』를 분석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여기에서 또 하나의 기준으로서 인용전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용전거가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기억만을 가지고서 조목을 서술한 게 아니고 그 출전을 명백히 제시하였으므로 사료적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료비판을 함에 있어서 해당 서적의 사료 인용 태도가 단순 기억에 의존했는지, 전거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⁵⁾

마지막으로 고구려 관련 기사가 『삼국유사』의 본문에 있는가 분주에 있는가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후주의 존재가 언급된 이상 고구려 관련 기사의 편입시점이 일연생전인지 사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주의 빈도와 양은 편찬 또는 간행 시 확보된 관련 자료의 풍부함을 나타내준다. 또한 분주의 내용은 해당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이가 바로 '분주의 전제적 매개적 성격'과 '본문과 분주와의 일체성'을 말한다.⁶⁾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표 1>

5) 문체론이나 문장심리학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전거를 인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문체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 같이 여덟 가지의 형태로 『삼국유사』의 해당 기사를 분류하고자 한다.

아래 기사들은 우선 편목 및 조목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각각의 사료 안에서 도 몇가지 유형이 있기에 8개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편재상 1장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해당 기사의 분류상 또는 기타 특이점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해서 언급할 수 밖에 없다.

紀異卷第一 古朝鮮(王儉朝鮮)條

A10217) 당의 『배구전』에 이르기를 “고려는 본시 고죽국(지금의 해주이다)인데 주가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하였다. 한이 3군으로 나누었으니, 현토·낙랑·대방(북대방)이다”라고 하였다.⁸⁾

馬韓條

A·A'1041 최치원이 말하기를 “마한은 (고구)려요, 진한은 (신)라요(『본기』에 의하면 “(신)라가 먼저 갑자년에 일어나고 (고구)려가 그 후 갑신년에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선)왕 준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로써 동명(왕)이 일어난 것은 이미 마한을 병합한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를 일컬어 마한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더러는 금마산을 두고 마한이 백제로 되었다고 하지마는 이는 대체로 착오이다. (고구)려 땅에는 본래 (마)읍산이 있었으므로 이름을 마한이라 하였다) 4이는 9이와 9한과 예와 맥이다”라고 하였다.⁹⁾

-
- 6) 坂本太郎, 1978, 『日本書紀の分註について』,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上, 동경대학교 출판부
- 7) 여기서 사료 앞에 나오는 A 등의 기호는 <표 1>에서 구분한 것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한편, 숫자로 1021 등으로 적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1은 기이권제일과 같은 권의 순차를 뜻하며, 02는 그 권의 두 번째 조목이라는 뜻이며 마지막에 나오는 1은 조목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고구려관련기사의 의미이다.
- 8) 『배구전』이라는 중국계 사서를 인용한 점은 폭넓은 사료수집과 인용이라는 측면에서 사료적 가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적인 입지에서(손진태, 1949,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학풍』 2-1 ; 1981, 『손진태 선생전집』 6, 태학사) 기이를 강조하는 기이권제일의 서의 내용을 고려해보면, 왜 고구려계 원전을 인용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ACC1042 『삼국사』에 이르기를 “명주는 옛날 예국이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예왕의 인장을 얻어 나라에 바쳤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춘주는 옛날의 우수주로 옛적의 맥국이다.”라고 하였다. 또 더러 이르기를 “지금의 삭주는 맥국이요, 혹은 평양성이 맥국이다.”라고 하였다.¹⁰⁾

B1043 『논어』 「정의」에 이르기를 “아홉 오랑캐는 1 현도, 2 낙랑, 3 고려, 4 만식, 5 부유, 6 소가, 7 동도, 8 웨인, 9 천비.”라고 하였다.

B1044 『해동안흥기』에 이르기를 “9한이란 것은 1 일본, 2 중화, 3 오월, 4 타라, 5 응유, 6 말갈, 7 단국, 8 여진, 9 예맥.”이라고 하였다.

七十二國條

AC'1061 『후한서』에 이르기를 “서한은 조선의 옛 지역에 처음에는 4군을 두었다가 뒤에는 2부를 두었더니 법령이 점차 번거로워지면서 갈라져 78국으로 되었으니 각각 1만호씩이다.”라고 하였다.(마한은 서쪽에 있어 54개의 작은 고을들이 모두 나라를 일컬었으며, 진한 동쪽에 있어 열두 개 작은 고을이 각각 나라를 일컬었으며, 변한은 남쪽에 있어 열두 개 작은 고을들이 각각 나라를 일컬었다)¹¹⁾

- 9) 최치원의 『계원필경(桂苑筆耕)』 즉 고구려계의 원전이 아닌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의 서적 즉 신라계의 원전을 인용하고 있다. 이 역시 같은 기사를 전하는 고구려계가 아닌 신라계의 원전을 들어 고구려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국내 사료라도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고구려사적인 입장에서 왜 고구려계 원전을 인용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다양한 전거를 들어 비교하는 『삼국유사』의 찬술태도를 고려해 본다면 고구려계 원전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은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시기상의 문제라면 이미 고구려계 원전들이 전래되지 않는 상태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들의 분석 결과를 일단 기다려 보고자 한다.
- 10) 위의 기사는 본문에서 『삼국사』 등을 인용하면서 맥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A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반부는 혹자를 인용하긴 하지만 인용전거를 밝히고 있진 않다. 다만 인용을 하고 있으므로 A라고 해야 하는지 C라고 해야 하는지 망설여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인용전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료적인 신빙성과는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게 되므로 여기서는 사료비판적인 측면에서 C라고 할 수 있다.
- 11) 앞서의 마한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삼국유사』의 삼한정통론의 입장에서

樂浪國條

- A1071 『신당서』 주석에 이르기를 “평양성은 옛날 한나라의 낙랑군이다.”라고 하였다.
 A1072 『국사』에 이르기를 “혁거세 30년(B.C.28)에 낙랑 사람들이 항복해 왔다.”라고 하였다. 12)

靺鞨 渤海條

- A1101 (『삼국사』에 이르기를 “의봉3년 고종 무인(873)에 고려의 남은 자손들이 한데 모여 북쪽으로 태백산(太白山) 밑을 의지 삼아 나라이름을 발해라 하였다.
 A1102 또 『신라고기』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씨니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을 발해라고

는 마한을 고구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이우성, 1966, 이조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역사학보』 31 ; 이만열, 1974, 17~8세기의 사서와 고대사인식, 『한국사연구』 10 ; 조법중, 1998, 고구려의 마한계승 인식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02) 이 역시 고구려의 내용으로 인식하고 편집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고구려 관련 기사로 분류하였다.

- 12) 위의 기사 역시 고구려 무휼왕과 낙랑 그리고 평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 역시 본문에서 인용전거를 밝히면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전하므로 A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계 사서에 이어 『국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객관성이 담보된 사료인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구려계 원전들이 인용 안 된 것은 무엇일까? 『국사』가 『삼국사』이든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나오는 『구삼국사』이든(강인숙, 1985, 「구삼국사의 본기와 지」, 『력사과학』 4 ; 홍윤식, 1987, 삼국유사에 있어 구삼국사의 체문제, 『한국사상사학』 1) 아니면 『대각국사문집』에 나오는 『해동삼국사』(今西龍, 1970, 『신라사연구』, 국서관행회 ; 이기백, 1976, 삼국사기론, 『문학과 지성』 26.)등간에 국내 원전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사서의 기재를 채용하여 『구삼국사』의 전승을 버린 『삼국사기』(末松保和, 1966, 『舊三國史と三國史記』 『청구사초』 2, 笠井出版社.)보다는 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고구려계 원전이라기보다는 고려시대에 정리된 제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기사를 포함해서 『삼국유사』의 편찬과 간행시에 유전된 고구려계 원전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하였다”라고 한다. 이상의 여러 글을 참고해 보면 발해는 말갈의 별종으로 다만 그의 창건과 병합이 같지 않을 뿐이다. 『지장도』에 보면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라고 하였다.)¹³⁾

A1103 가탐의 『군국지』에 이르기를 “발해국의 압록·남해 부여 추성 4부는 모두 함께 고(구)려의 옛 땅이니 신라의 천정군으로부터(『지리지』에는 삭주에 소속된 고을로 천정군이 있으니 지금의 용주이다) 추성부까지는 39역이 있다.”라고 하였다.

A1104 또 『동명기』에 이르기를 “졸본성은 땅이 말갈(혹은 이르기를 “지금의 동진”이라고도 한다)¹⁴⁾에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신)라 제6대 지마왕 14년(을축)(125)에는 말갈군사가 북쪽 국경으로 크게 몰려와서 대령책을 습격하고 이하를 건넜다.¹⁵⁾

北扶餘條

A1131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서』에 선제 신작3년 임술(B.C. 59) 4월 8일 천제가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에 도움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라고 하였다.¹⁶⁾

東扶餘條

C·C'1141 북부여 왕 해부루의 신하 아란불의 꿈에 천제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써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너는 이곳을 피하라.(동명이 장차 흥기할 조짐을 이룸이다) 동해 해변에 가섭원이라 하는 땅이 있어 토지가 기름져서 왕도를 둘만 하니라”라고 하였다. 아란불이 왕을 권하여 도움을 그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나라이름을 동부여라 하였다.¹⁷⁾

-
- 13)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신라고기』에 발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고기』의 신라는 적어도 통일신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발해의 건국이 698년이므로 이 보다 이후에 편찬된 서적이 된다.
- 14) 본문과 연동되며, 고구려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분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15) 여기서 『동명기』를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로 추정할 견해도 있다(津田左右吉, 1964.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津田左右吉全集 11-滿鮮地理研究』 1, 岩波書店).
- 16) 국내원전인 『고기』에 『전한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 조목의 『고기』의 사료적 가치와 그 성격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C1142 지황3년 임오(22)에 이르러 고(구)려왕 무홀이 이를 치고 왕 대소를 죽이니 나라가 없어졌다.

高句麗條

C115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더러는 말하기를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이다.”라고들 하나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지역에 있다.

AA'1152 『국사』 「고려본기」에 이르기를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이다. …… (『단군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기록을 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뒤에 주몽을 낳았다고 하였다.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부루이다”라고 하였으니 부루와 주몽은 이복형제일 것이다)¹⁸⁾

CC'1153 이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자를 주몽이라 하므로 이로써 이름을 지었다. …… 그는 졸본주(현도군의 지역이다)까지 와서 드디어 여기에 도읍을 하였다. 미처 궁실을 지을 사이도 없어 그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나라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따라서 고씨로 성을 삼으니 (본래의 성은 해씨였는데 이제 천제의 아들로써 햇빛을 받고 낳았다 하여 자신이 높을 '고'자로 성을 삼았다) 당시의 나이가 열두 살이요, 한나라 효원제 전소 2년 갑신(B.C.37)에 즉위하고 왕으로 일컬었다. 고(구)려의 전성시대에는 210,508호였다.”라고 하였다.

AC'1154 『주립전』 제21권에 씌었으되, “옛날 영품리왕의 몸종이 태기가 있어 점쟁이가 점을 쳐 말하기를 “아이를 낳으면 귀히 되어 반드시 왕이 되리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 자식이 아니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몸종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기운이 뻗쳐 내렸으므로 내가 아이를 뱀 것이외다”고 하였다. 그가 아들을 낳게 되매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돼지우리에 버렸던바 돼지가 입김을 불어 덥히고 마굿간

17) 비교적 초기 이른바 국초의 기사를 전하면서 전거를 전했다면 고구려계 원전의 실체가 명확해졌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 아래 1142 등도 역시 그러하다.

18)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초의 기사를 전하면서 등장한 원전이 『국사』 고려본기 라는 점이다. 국내 원전이지만 고구려 당시의 원전은 아니다. 또한 국초의 사실을 전하는 원전으로 『단군기』가 등장하는데 본문이 아닌 분주에 등장한다. 이것이 고구려계 원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다만 이름만으로 보면 고구려가 아닌 단군에 초점을 맞춘 책인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에 버린즉 말이 젖을 먹여서 죽지를 앓고 필경은 부여왕이 되었다.”라고 하였다.(이는 동명제가 졸본부여의 왕이 된 것을 말함이다. 이 졸본부여는 역시 북부여의 별개 도읍지이므로 부여왕이라 한 것이다. 영품리는 부루왕의 다른 칭호이다)

下韓百濟條

- B1161 『후한서』에 이르기를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 B1162 『본기』를 보면 온조가 일어난 것은 홍가 4년 갑진(B.C.17)이라 하였은 즉 혁거세나 동명보다도 40여년 후의 일이다.
- A1163 그런데 『당서』에는 이르기를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 땅에 살았다.”라고 한 것은 온조의 계통이 동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아마 낙랑 땅에서 어떤 인물이 나서 변한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마한 등과 함께 대치한 것은 온조의 전에 있었던 일인 모양이요, 그 도읍한 데가 낙랑 북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
- C1164 혹자는 구룡산을 또 함부로 변나산이라 한 때문에 고구려를 변한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대체로 잘못이다. 마땅히 옛날 어른들의 말을 옳다 해야 할 것이다. 백제 땅에는 원래 변산이 있었으므로 변한이라 한 것이니 백제 전성시대에는 호수가 152,300호였다.

辰韓條

- A1171 진한(진한으로도 한다) 『후한서』에 이르기를 “진한의 늙은이들이 직접 말하기를 “진나라 망명자들이 한국으로 오매 마한이 동쪽 지역 땅을 떼어 주었다. 서로를 부를 때 도라고 하니, 진나라 말과 비슷하였으므로 혹은 진한으로 이름했다고도 하며 열두 개 작은 나라가 있어 각각 1만 호로써 나라로 일컬었다.”라고 하였다”라고 한다.

第二南解王條

- C1201 이 왕대에 낙랑국 사람들이 금성을 침략해 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또 천봉5년 무인(18)에는 고(구)려에 예속되었던 일곱 나라가 항복해 왔다.”라고 하였다.

第三祭禮王條

- C1211 건무18년(42)에 이서국을 쳐서 없앴으며 이 해에 고구려 군사가 와서 침

범하였다.

奈勿王 金堤上條

C1261 늘지왕 즉위 3년 기미(419)에 이르러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 와서 말하기를 “저희 임금의 대왕의 아우님되는 보해가 지혜와 재주가 특출하다는 말을 듣고 그와 서로 친하고 싶어 특히 저를 보내어 간청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第十八實聖王條

CC'1271 의희 9년 계축(423)에 평양주에 큰 다리가 완성되었다.(아마도 남평양인 듯한데 지금의 양주다) 왕이 전 임금의 태자 늘지가 덕망이 있음을 꺼려서 장차 그를 죽이려, 고구려군사를 청하고 거짓 늘지를 맞는 체 하였으나, 고구려 사람들이 늘지에게 현행이 있음을 보고, 이에 창끝을 되돌려 왕을 죽이고 이에 늘지를 올려 세워 왕을 삼아 놓고 가버렸다.

眞興王條

C1301 승성 3년(554) 9월에 백제군사가 와서 진성을 침노하여 남녀 3만 9천명과 말 8천필을 노략해 가지고 갔다. 이보다 앞서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하였던 바, 진흥왕이 말하기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니,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을진대 내가 어찌 감히 성공을 바랄 것인가?”라고 하였더니 바로 이 말이 고구려로 전달되어 고구려가 이 말에 감복하고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

天賜玉帶條

C1321 그후 고(구)려왕이 신라를 치려고 계획하면서 말하기를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라고 하였더니 첫째는 황룡사 장륙존불상이요, 둘째는 그 절의 9층탑이요, 셋째는 진평왕의 ‘하늘이 준 옥띠’라 하여 왕은 곧 계획을 중지하였다고 한다.

金庾信條

CC'1351 유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할 계획으로 밤낮 몰두하고 있었는데 백석이 그의 계획을 알고 유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컨대 공과 함께 먼

저 비밀히 저 나라들을 정탐한 연후에 일을 도모함이 어떠합니까?”라고 하니 유신이 기뻐서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길을 떠나 바야흐로 고개 위에서 쉬는데 웬 여자 둘이 나타나 유신을 따라왔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고구려 사람인데(고분에 백제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추남은 즉 고구려 사람이요, 또 음양에 역행한다는 것도 보장왕 때 일이다)

太宗春秋公條

CA'1361 왕이 태자로 있을 때에 고(구)려를 치고자 하여 이 때문에 군사를 청하러 당나라에 들어갔더니 당나라 황제가 그의 풍채를 칭찬하여 신성한 사람으로 일러 곧이 만류하여 시위를 하라고 하는 것을 (춘추가) 극력 간청하여 이내 돌아왔다. 7년 임술(662)에 소정방을 임명하여 요동방면 행군대총관으로 삼았다가 곧이어 평양도행군대총관으로 바뀌, 고(구)려군사를 패강에서 격파하고 마읍산을 빼앗아 군영으로 정하고 드디어 평양성을 에워쌌다가 때마침 큰 눈이 와서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이상은 『당사』에 쓰인 글이다)¹⁹⁾

B1362 『신라별기』에 이르기를 “문무왕 즉위 5년 을축(665) 가을 8월 경자에 왕이 친히 대부대를 거느리고 응진성으로 행차하여 가왕인 부여웅을 만나 계단을 만들고 흰 말을 잡아서 맹약을 하는데 먼저 천신과 산천의령들에게 제사한 연후에 피를 마시고 글을 지어 맹세하기를 “지난날에

19) 여기서는 본문에서 인용전거 없이 말한 것을 분주에서 『당사』의 내용이라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후주에 대한 연구를 행한 바 있다(河廷龍, 2002. 3. 『三國遺事』의無極記と後註, 『朝鮮古代研究』 3, 朝鮮古代研究刊行會(日本)). 『삼국유사』는 대개 전거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단지 이 조목을 포함하여 다섯 군데에서만(① 권제이 20. 남부여전백제 ② 권제삼 흥법제삼 6. 보장봉로보덕이암 ③ 권제삼 탐상 20. 어산불영 ④ 권제오 감통제칠 2. 옥면비념불서승). 위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상은 『○○』이라는 전거에서 인용했다는 식으로 전거가 없는 곳에 전거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과 분주의 차이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본문과 분주의 각각이 별개이므로 각각 C로 A'로 분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주에서 본문의 전거를 밝힌다는 것은 결국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 그에 대해서 시주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주에 다만 전거만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의 관련 기사로서 그 내용이 본격적인 내용인지 단순 열거인지의 구분은 해당 본문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백제의 전 임금이 역리와 순리를 분간 못하고 이웃 나라와 좋게 지낼 줄 모르고 인척간에 화목하지 못하면서 고구려와 결탁하고 왜국과 내통하여 함께 잔인과 포악을 일삼아 신라를 침략하여

- A1363 또 『고기』에 이르기를 “총장원년 무진(668)에 나라 사람들이 청한 당나라 군사가 평양의 교외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빨리 군량을 나르라”라고 하였다.....이튿날 유신이 군사를 돌려 고구려군사를 추격하여 수만 명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였다.
- B1364 또 『신라고전』에 이르기를 “정방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치고 나서 다시 신라를 칠 계획으로 머물고 있었다. 이때에 유신이 그 계획을 알고 당나라 군사를 한턱 먹이면서 독약을 먹여 모조리 죽여 이를 구덩이에 묻었다.”라고 하였다.
- A'1365 (『당사』를 보면 그 죽은 까닭을 말하지 않고 다만 ‘죽었다’고만 하였으니 무엇 때문일까? 역시 기피한 것일까? 우리 땅에 전하는 이야기가 근거가 없는 것일까? 만약 임술년(668) 고구려를 치던 전쟁에서 신라 사람들이 정방의 군대를 죽였다면 그 뒤 총장 무진년(662)에 어떻게 당나라에 청병을 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 C1366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평정하고 돌아간 후에 신라왕이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백제의 남은 적을 추격하여 사로잡도록 하고 한산성에 주둔하고 있더니, 고(구)려와 말갈 두 나라 군사가 와서 이를 포위하였으므로 마주 싸웠으나 포위를 풀지 못하고 5월 11일로부터 6월 22일에 이르매 우리 군사가 매우 위급하였다.

三國遺事卷第二 文虎王法敏條

- CA'2011 총장 무진에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인문 흡순 등과 함께 평양에 와서 당나라 군사와 회합하여 고구려를 멸하고 당나라 장수 이적은 고장왕을 사로잡아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왕의 성이 고씨이므로 고장이라고 한다. 『당서』 『고(제)기』에 의하면 현경5년 경신(660)에 소정방 등이 백제를 정벌하였다. 그 뒤 12월에 대장군 설(필)하력이 패강도행군대총관이 되고 소정방이 요동도대총관이 되고 유백영이 평양도대총관이 되어 고(구)려를 쳤다.....
- D2012 이듬해에 고종이 사람을 시켜 인문을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고도 우리 군사를 해치려는 것은 어떤 까닭이나?”라고 하고는 곧 옥에 가두고 50만 군사를 조련하여 설방을 대장으로 삼아 신라를 치려하였다.

金傅大王條

D2191 또 천자가 거느린 군대의 위력과 위엄에 의거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그의 국토를 빼앗아 이를 군과 현으로 만들었으니 가위 변성했다고 할 만하다.

南扶餘 前百濟條

B2201 『통전』에 이르기를 “백제는 남으로 신라에 접하고 북으로는 고구려에 이르고 서쪽은 큰 바다에 막혔다.”라고 하였다.

B2202 『구당서』에는 이르기를 “백제는 부여의 별종으로 동북쪽은 신라요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월주에 이르고 남으로 바다를 건너면 왜국에 이르고 북쪽은 고(구)려이니 그 나라 임금이 있는 데는 동서로 두 성이 있다”하였다.

B2203 『신당서』에 이르기를 “백제는 서쪽으로 월주를 경계로 하고 남쪽은 왜국으로 모두 바다를 건너야 하며 북은 고(구)려이다.”라고 하였다.

A2204 『사기』 본기에는 이르기를 “백제의 시조는 온조이니 그의 아버지는 추모왕이요 혹은 주몽이라고도 한다. 북부여로부터 도망하여 졸본부여까지 왔더니 이 지방의 왕이 아들은 없고 다만 딸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 그가 보통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그의 둘째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얼마 못 되어 부여 땅의 왕이 죽으매 주몽이 왕위를 계승하여 아들 둘을 낳으니 맏이가 비류요 둘째가 온조였다.

A2205 살펴보건대 『고전기』에 이르기를 “동명왕의 셋째 아들 온조가 전한 흥가3년 계유에 졸본부여로부터 위례성으로 와서 도움을 정하고 왕으로 일컫다가 14년 병진(B.C. 5)에 한산(지금의 광주)으로 옮겨 389년 동안 지냈다. 13대 근초고왕에 이르러 함안 원년(371)에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아 북한성(지금의 양주)으로 도움을 옮겨 105년 동안 지냈으며.....²⁰⁾

C2206 또 시조 온조는 바로 동명왕의 셋째아들로서 몸집이 매우 크고 성품이 효도와 우애를 좋아하고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였다.

20) 고구려의 국초에 해당하지는 내용이지만 『고전기』가 고구려계가 아닌 백제계 원전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고구려의 국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계 원전을 인용하든가 아니면 인용전거를 들지 않고 있다. 국내 원전을 들더라도 고려시대에 찬술된 것을 보이는 2차 사료 등을 들고 있다. 국초 관련 기사에 대해서 고구려계 원전을 인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역시 『삼국유사』 찬술과 간행 당시에는 이미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

三國遺事卷第三 興法第三 順道肇麗條

B'3011(순도의 다음에 역시 범심·의연·담엄의 무리가 있어서 서로 계승하여 불교를 일으켰다. 그러나 고전에는 문헌이 없으며 여기서도 역시 편으로 목차에 넣을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승전』에 실려 있다.)

A3012 『고려본기』에 이르기를 “소수림왕 즉위 2년 임신(372)은 즉 동진 함안2년으로 효무제가 즉위한 해다. 전진의 부견은 사신과 스님 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냈다.(당시 부견은 관중에 도읍하였으니 즉 장안이다) 또 4년 갑술(374)에는 아도가 진나라로부터 왔다. 이듬해 을해 2월에는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두고 또 이불란사를 세워서 아도를 두니 이것이 고구려 불교의 시초이다.”라고 하였다. 21)

A3013 『승전』에 순도와 아도가 위나라로부터 왔다는 말은 틀린 것이요, 실상은 전진으로부터 왔다. 또 이르기를 “초문사는 지금의 흥국사요, 이불란사는 지금의 흥복사”라고 한 것도 역시 그릇된 것이다. 살펴보건대 고구려 당시의 도읍은 안시성으로 안정홀이라고도 하였으니 요수의 북쪽에 있다.

.....

阿道基羅條

A3031 『신라본기』 제4에 이르기를 “제19대 눌지왕 때에 사문 목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이르니 그 고을 사람 모례(혹은 모록이라고도 한다)가 집 안에 토굴을 짓고 모셨다.”22)

A3032 살펴보건대 아도본비에 이르기를 “아도는 고구려 사람이요, 그 어머니는 고도령이다. 정시연간(240~248)에 조위사람인 아(성이 아이다)굴마가 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고구려에 왔다가 사통하고 돌아갔더니 이로 인하여 아도를 임신하게 되었다.

A3033 이에 의거해 보건대, 『본기』와 본비 두 가지 설이 서로 어긋나서 이와 같이 다르다. 잠시 시험 삼아 논평한다면 양나라 당나라의 두 『승전』과 『삼국본사』에는 모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불교의 시작이 진나라 말년 태원연간(376~396)이라고 기재하였으니, 곧 순도 아도 두 법사가 소수림왕 갑술(374)에 고구려에 도착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전기는 틀리지

21) 국초의 기록에 대해 국내원전인 『고려본기』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본기』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육 소수림왕조(小獸林王條)의 기사와 거의 일치한다. 만약 두 사료가 동일사료라면 결국 『삼국사기』라는 제2차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22) 여기서도 신라계 2차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않는다.....

A3034 또 원위의 승 『담시(혜시라고도 한다)전』에 이르기를 “담시는 관중사람으로 출가하여 중이 된 후 기이한 행적이 많았다. 진나라 효무제 태원9년(384)말에 경부, 율부를 비롯한 수십부를 가지고 요동으로 가서 포교를 하는데 직접 3승을 가르쳐 주면서 그 자리에서 불교에 귀의하게 하니 아마 고구려가 불교를 알게 된 시초일 것이다.”²³⁾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AA'A'3061 『고려본기』에 이르기를 “고구려 말 무덕 정관 연간(618~649)에 국인들이 다투다시피 오두미교를 신봉하는데 당나라 고조가 이 소문을 듣고 도사로 하여금 천존상을 보내게 하고는 가서 『도덕경』을 강의하게 하니 왕이 국인들과 함께 들었다. 이것이 바로 27대 영류왕 즉위 7년이요, 무덕 7년 갑신(624)이다.(또 『본전』에 이르기를 “건봉2년 정묘(667) 3월 3일이라 하였다) 얼마 안 되어 나라가 망하였으니(총장원년 무진(668)에 나라가 망하니 계산하면 경술년과 19년 떨어졌다), 지금의 경북사에 있는 비래방장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들 하였다.(이상이 『국사』이다) 진락공은 시를 지어 거처에 걸어두었고 문열공은 전기를 지어 세상에 유포시켰다.”²⁴⁾

A3062 『당서』에 이르기를 “이보다 앞서 수양제가 요동을 정벌한 때 비장 양명이 전쟁이 불리하여 죽으면서 맹세하기를 “죽어서는 충신이 되어 저 나라를 멸망시키리라”라고 하더니 개씨가 조정을 전횡하게 되자 개로서 성으로 삼았으니 바로 양명이 그 응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AA'A'A'3063 또 살펴보면 『고려고기』에 이르기를 “수나라 양제가 대업8년 임신(612)에 군사 30만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쳤는데 10년 갑술(614) 10월에 고구려 왕이(이 때는 제36대 영양왕 25년이다) 표를 올려 항복을 청했다.....(『국사』에는 영류왕의 이름이 건무요 혹은 건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무양이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 대신으로 불러들였더니 성을 개, 이름을 금으로 자칭하고,

23) 동진의 담시에 대한 내용이므로 5세기 초반의 기사로 보이는데, 아마도 『해동고승전』의 담시전의 내용인 듯하다.

24) 한편 이상이 『국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사료 1361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위가 소문에 이르니 바로 시증적이다.(『당서』에 이르기를 “개소문은 스스로 막리지라 불렀다”라고 하니 중서령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신지비사』 서에 이르기를 “소문 대영홍이 서를 달고 아울러 주석하다”라고 하였으니 곧 ‘소문’이 바로 직명인 것은 문헌으로 증명되나 전기에 이르기를 “문인 소영홍의 서’이라 하였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국사』에는 “무덕8년 을유(625)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불교와 도교를 청하매 당나라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라고 하였다. 보장왕대에 이르러 당태종이 친히 6군을 거느리고 와서 치다가 또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고종 총장원년 무진(668)에는 우상 유인계와 대장군 이적과 신라의 김인문 등이 침공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돌아가니, 보장왕의 서자는 4천여가를 이끌고 신라로 투신하였다.(『국사』와는 좀 다르나 짐짓 모두 기록해둔다)”라고 했다.

A3064 애석하도다 방장이 날아간 후에는 동명왕의 옛 나라도 망하게 되었는데”라고 하였다. 발문에 이르기를 “고구려 보장왕이 도교에 혹하여 불교를 믿지 않음에 스님이 이에 방장을 날려 남쪽으로 이 산에까지 왔다. 그 후 어떤 신인이 고구려의 마령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며칠 못가서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두가 『국사』와 같고 나머지는 모두 『본전』과 『승전』에 기재되었다.

A3065 선사에게는 고제 열한 사람이 있어 무상화상과 제자 김취 등은 금동사를 세웠으며, 적멸 의웅 두 선사는 진구사를 세웠으며 지수는 대승사를 세우고 일승과 심정 대원 등은 대원사를 세우고 수정은 유마사를 세우고 사대와 계육 등은 중대사를 세우고, 개원화상은 개원사를 세우고 명덕은 연구사를 세웠으며, 개심과 보명도 전기가 있으니 모두 『본전』과 같다.

C3066 찬에 이르기를, 고구려왕은 가소롭게도 눈에 빠져 강과 바다에 외롭이 있는 것을 살펴보지 못하는구나.²⁵⁾

塔像 遼東城育王塔條

A4021 『삼보감통록』에 쓰여 있기를 “고구려 요동성 옆의 탑은 『고로전』에 이

25) 위의 기사는 찬으로 일연의 찬으로 확실한 부분이다. 찬에는 인용전거를 들 수 없다.(河廷龍, 2001. 3, 『三國遺事』의讚に對する一考察, 『古代文化』 533, (財)古代學協會)

르기를 “옛날 고구려 성왕이 국경에 순행을 하다가 이 성에 이르러 오색 구름이 땅을 덮는 것을 보고 구름 속으로 가서 살펴보니 어떤 스님이 석장을 잡고 서 있는데 가까이 가면 그만 없어지고 멀리서 보면 다시 나타났다. 26)

A4022 『한서』와 『삼국지』의 「지리지」에 의하면 요동성은 압록강 밖에 있어 한 나라 유주에 속하였으며 고구려의 성왕은 어느 임금인지 알 수 없다. 혹은 동명성제라고 하나 틀릴 것이다. 동명왕은

高麗靈塔寺條

A4041 『승전』에 이르기를 “스님 보덕의 자는 지법이니 예전 고(구)려의 용강현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니 다음에 나올 『본전』에 자세하다. 늘 평양성에서 살더니 한번은 어느 산방의 노승이 와서 강경을 청하였다.

皇龍寺九層塔條

D4061 자장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 남으로 왜국과 연결하였으며 고구려·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고 이웃에 적들이 횡행하니 이것이 백성들의 고통이 되오”라고 하였다.

C4062 뒤에 고(구)려 왕이 장차 신라를 치려고 하여 말하기를 “신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어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²⁷⁾

B4063 또 해동의 명현 안홍이 지은 『동도성립기』에 이르기를 “신라 제27대에 여왕이 즉위하니 비록 덕행은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9한이 침노하니 만약 용궁담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침범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니 제1층은 일본이요, 제2층은 중국이요, 제3층은 오월이요, 제4층은 탁라요, 제5층은 응유요, 제6층은 말갈이요, 제7층은 단국이요, 제8층은 여적이요, 제9층은 예맥이다.”라고 하였다.

26) 『삼보감통록』은 집진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3권(K-1069 (32-589). T-2106(52-404))을 말하며 664년에 당나라 도선(道宣)이 편찬한 것이다. 중국계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고로전』은 고구려계 원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주림(法苑珠林)』, 『광홍명집(廣弘明集)』, 『속고승전(續高僧傳)』에도 『고로전』이 인용되고 있으므로 고구려계 원전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는 없을 듯하다.
 27) 이에 대해서는 전고를 통해서 이미 편집 과정에서 중복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河廷龍, 2001. 3. 앞의 논문)

前後所將舍利條

C4151 흥덕왕대 태화원년 정미(827)에 당나라에 유학하였던 고려의 스님 구덕이 불경 약간 함을 가지고 오니 왕과 여러 절의 스님들이 흥륜사 앞길까지 마중을 나왔다.

三國遺事卷第四 義解第五 圓光西學條

C5011 이때에 고구려와 백제가 늘 변경을 침노하므로 왕이 이것을 매우 걱정하여 수나라에 청병을 하고자(마땅히 당나라야 한다) 법사에게 청병하는 글을 청하였다. 황제가 그 글을 보고 30만 군사로써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였는바 이로부터 법사가 유학도 심오하게 안다는 것이 알려졌다.

慈藏定律條

C5061 이듬해 신미에는 고구려의 해량법사를 국통으로 삼아 역시 사주라고도 불렀으며 보량법사가 대도유나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었고, 주통 9인, 군통 18인 등을 두었다가 자장대에 이르러는 다시 대국통 한 사람을 두었으니 대개 상직이 아니니, 또한 부레량이 대각간이 되고, 김유신이 태대각간이 된 것과 같다.

三國遺事卷第五 神呪第六 明朗神印條

D7031 총장원년 무진(668)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병을 거느리고 신라와 합작하여 고구려를 멸하였다. 그 뒤에 남은 군사가 백제에 머물면서 장차 신라를 습격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신라 사람이 알아채리고 군사를 내어 이를 대항하였다.

避隱第八 惠現求靜條

C9031 또 고구려의 스님 파약은 중국의 천태산에 들어가 천태지지의 교관을 공부하여 신이로 산중에서 알려져 입적한 후 『당승전』에 역시 실리게 되었으니 영검이 자못 많았다.

3. 관련 기사의 분포 등에 대한 몇가지 분석

앞장에서는 『삼국유사』 가운데서 고구려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해석·검토하면서 <표 1>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라서 내용분류를 하였다. 그러한 결과를 각 편목 조목별로 분류하고 전기명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편목별 고구려 관련 기사의 분포와 전기

卷次	篇目	條目 (숫자는 條目順番)	분류	인용전기명 (진한 것은 분주)
三國事 卷一	紀異卷 第一	王曆 第一	(2A. 26C)	후한서, 남서
		2 古朝鮮	A	배구전
		4 馬韓	AA'CBB	최치원, 본기, 삼국사, 논어정의, 해동안흥기
		6 七十二國	A	후한서
		7 樂浪國	AA	신당서, 국사
		10 靺鞨渤海	A'A'AA	삼국사, 신라고기, 군국지, 동명기
		13 北扶餘	A	고기, 전한서
		14 東扶餘	CC'C	
		15 高句麗	CAA'CC 'AC'	국사, 고려본기, 단군기, 주립전
		16 卞韓 百濟	BBAC	후한서, 본기, 당서
		17 辰韓	A	후한서
		20 第二南解王	C	
		21 第三努禮王	C	
		26 奈勿王 金堤上	C	
		27 第十八實聖王	CC'	
		30 眞興王	C	
		32 天賜玉帶	C	
35 金庾信	CC'			
36 太宗春秋公	CA'BAB A'C	당사, 신라별기, 고기, 신라고전, 당사		
三國事 卷二	卷第二	3/23		
		1 文虎王法敏	CA'D	당서고기
		19 金傅大王	D	
三國事 卷三	卷第三 興法	第三 3/7		
		1 順道肇麗	B'AA	승전, 고려본기, 승전
		3 阿道基羅	AAAA	신라본기, 아도본비, 승전, 삼국본사, 답시전,
		6 寶藏奉老普德移	AA'A'A	고려본기, 본전, 국사, 당서, 고려고기,

		塔像 4/30	庵	AA`A`A `AAC	국사, 당서, 신지비사, 국사, 국사, 국사, 본전, 승전, 본전
			2 遼東城育王塔	AA	삼보감통록(고로전), 한서지리지, 삼국지리지
			4 高麗靈塔寺	A	승전, 본전
			6 皇龍寺九層塔	DCB	동도성립기
			15 前後所將舍利	C	
三國遺事卷四	義解	第五 2/14	1 圓光西學	C	
		6 慈藏定律	C		
三國遺事卷五	卷第五	神呪 第六 1/3	3 明朗神印	D	
		感通 第七 10			
		避隱 第八 1/10	3 惠現求靜	C	
		孝善 第九 5			

아래 <표 3>은 앞의 <표 2>에 대해서 『삼국유사』 전편목과 조목에 대한 양적인 통계 분석을 1차적으로 시행해서, 그것을 편목별로 그리고 권별로 합계해서 분석해 낸 결과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3> 편목별 고구려 관련 기사의 조목수와 분포도

卷次	篇目						
	編次	王曆	第一				
三國遺事卷一	紀異卷第一			18/36	50%	50%	21/59 35.5%
三國遺事卷二		卷第二		3/23	13.0%	13.0%	
三國遺事卷三	卷第三	興法	第三	3/7	42.8%	7/37 18.9%	11/79 13.9%
		塔像		4/30	13.3%		
三國遺事卷四	卷第四	義解	第五	2/14	14.2%	14.2%	
三國遺事卷五	卷第五	神呪	第六	1/3	33.3%	2/28 7.1%	
		感通	第七	0/10	0%		
		避隱	第八	1/10	10.0%		

		孝善	第九	0/5	0%		
				32/138	23.1%		

① 우선 분량으로 나뉜 것으로 보이는 권차를 중심으로 보면, 권1, 권2, 권3, 권4, 권5 모두에 고구려 관련 기사는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5/5 즉 10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권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② 분량과 내용으로 나뉜 편차를 보면, 기이권제일, 권제이, 권제삼, 권제사, 권제오 모두에 고구려 관련 기사는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역시 5/5 즉 10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편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③ 내용을 중심으로 나뉜 것으로 보이는 편목별을 분석해보면 보면, 왕력제일, 기이권제일, 권제이, 흥법제삼, 탐상, 의해제오, 신주제육, 피은제팔의 여덟 개의 편목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가 보인다. 즉, 권제오의 감통제칠과 효선제구를 제외한 모든 편차에 고구려 관련 기사는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8/10 즉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④ 조목으로서 왕력제일은 한 조목으로 친다면 고구려 관련 기사가 등장하므로 100%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다음 기이권제일에서는 36조목 가운데 18개 조목에 고구려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으므로, 즉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이제이라고 할 수 있는 권제이에서는 3/23 즉 13.0%를 점하고 있다. 권제일에 비해서 권제이의 비율이 낮은 것은 권제이의 대상이 고구려 멸망 이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통일과 관련된 조목만을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

⑤ 권제삼부터 권제오까지는 신라사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문화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불교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 이후로 고려에 이르는 시기에 걸친 내용이 많다. 그러한 시대적인 한계 가운데서도 11개의 조목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국시대로

한정된다면, 대부분 조목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림이 없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흥법제삼에서는 7개 조목 가운데 무려 3개 조목으로 즉 42.8%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조목이 통일신라시대의 내용이므로 결국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탐상에서는 30개 조목 가운데 4개 조목으로 13.3%이며, 의해제오에서는 14개 조목 가운데 2개 조목으로 14.2%, 신주제육은 3개 조목 가운데 한 개 조목으로 33.3%, 피은제팔에서는 10개 조목 가운데 1개 조목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 가운데 왕력제일이라는 편목을 제외한 제편목의 138 조목 가운데 28조목 계산하자면, 『삼국유사』의 제조목 가운데 약 23.1% 즉 전체의 1/5의 조목에 걸쳐 고구려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물론 『삼국유사』의 주요 내용은 신라사 또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문화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고구려사 등이 무시된 것은 아니라는 의외의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관련해서,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의 역사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단군왕검이라는 역사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신화의 시대로부터 고려 후기의 역사까지 모두 전하고 있다는 점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고구려의 건국 시기인 B.C. 37년 이전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목에는 고구려 기사가 등장할 수 없다는 점과 멸망 시기는 668년 이후 역시 고구려는 역사상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이편에 해당하는 권제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권제이의 경우는 23개 조목 가운데, 시기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이전 구체적으로 고구려 멸망 이전 고구려 존속시기를 다룬 조목은 4조목뿐이다. 구체적으로 고구려 존속 시기의 내용을 다룬 조목은 다음의 문호왕법민조, 남부여전백제조, 무왕조, 가락국기조이며 이 가운데 가락국기 이외의 3개 조목 즉 75%의 조

목에 고구려 관련 기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타 고구려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권제삼, 권제사, 권제오에도 대입해 보면,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시대로서 고구려 존속 시기의 조목을 다룬 조목 가운데서 고구려 관련 기사가 등장하는 비율은 매우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비율은 단순히 1/5이 아닌 매우 높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권제삼 탐상 30조목 가운데, 7번째 조목인 황룡사중분황사약사봉덕사종조부터는 대개 통일신라시대의 내용이 주가 된다. 다만, 15번째 조목인 전후소장사리조와 16번째 조목인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조, 19번째 조목인 낙산이대성 관음정취조신조, 21번째 조목인 대산오만진신조 마지막으로 23번째 조목인 대산월정사오류성중조의 5개 조목에는 자장과 관련하여 매우 짧은 분량으로 삼국시대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탐상 가운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6개의 조목 가운데 3개 조목 즉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단편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 5개 조목을 합친다고 해도 11개 조목 가운데 3개 조목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다.

권제사 의해제오의 경우는 14개 조목가운데 다음의 6개조목 즉 보양리목조, 진표전간조, 관동풍악발연수석기조, 승전축루조, 심지계조조, 현유가해화엄조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존속 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8개 조목 가운데 2개 조목 즉 25%의 조목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권제오 신주제육은 모두 삼국시대이지만, 감통제칠의 경우는 선도성모수희불사조, 용천사혜성가 진평왕대조 두 개 조목만 삼국시대에 해당하므로 2개 조목 가운데 고구려 관련 기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고구려 관련 기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 편목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분량이 매우 적은 게 아닌가 싶다. 피은제팔의 경우는 시대가 불명확한 한 조목을 제외하면 고구려 존속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3개 조목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1개 조목에 고구려 관련 기사가 있으므로 33.3%를 차지한다. 마

지막으로 호선제구의 경우는 첫 조목만이 고구려 존속 시기에 해당하므로 0/1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고구려 존속 시기의 고구려 관련 기사 분포도

卷次	篇目			전 시기	고구려 존속 시기		
	編次	王曆	第一				
三國遺事卷一	紀異卷第一		第一	18/36 50%	18/36 50%	18/36 50%	21/40 52.5%
三國遺事卷二	卷第二			3/23 13.0%	3/4 75%	3/4 75%	
三國遺事卷三	卷第三	興法	第三	3/7 42.8%	3/6 50%	6/12 또는 6/17 50 또는 35.2%	10/29 또는 10/34 34.4 또는 29.4%
		塔像		4/30 13.3%	3/6 또는 3/11 50 또는 27.2%		
三國遺事卷四	卷第四	義解	第五	2/14 14.2%	2/8 25%	2/8 25%	
三國遺事卷五	卷第五	神呪	第六	1/3 33.3%	1/3 33.3%	2/9 22.2%	
		感通	第七	0/10 0%	0/2 0%		
		避隱	第八	1/10 10.0%	1/3 33.3%		
		孝善	第九	0/5 0%	0/1 0%		
				32/138 23.1%	31/69 또는 31/74 44.9% 또는 41.8%		

앞의 <표 4>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결국 고구려 존속 시기에 있어서 해당 조목은 모두 69개 조목 또는 74개 조목이 있으며 그 가운데 고구려 관련 기사는 31개 조목으로 41.8~44.9%에 이른다. 따라서 『삼국유사』 내용 가운데 고구려 존속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에 한정해서 조목들을 고찰해 보면, 고구려 관련 기사는 그 가운데 1/3을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유사』는 신라사 못지않게 고구려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4. 전거의 분포를 통해서 본 원전론

이번 장에서는 편목별 전거의 분포를 조사해서 그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표 1>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고구려 관련 기사를 8개의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분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일연찬이 확실한, 즉 찬자명이 있는 권제오 가운데 감통제칠과 효선제구에는 고구려 관련 기사가 아예 전무하다. 그리고 신주제오와 피은제팔에도 단지 한번씩만 나오고 있다. 즉 다른 편목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 예가 적은 것이 뚜렷하다.
- ② D' 즉 분주 가운데서 단순히 고구려를 거명한 예는 하나도 없다. 거꾸로 말하면 분주에서 고구려관련기사가 나올 때는 전거를 들었거나 적어도 본격적인 내용만이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글쓰기에서 굳이 분주에서 전거없이 단순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전거를 들고 있는 ABA'B'가 권제일, 권제이, 권제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연찬이 기재되어 있는 신주제육을 비롯한 권제오에는 전거를 들고 있는 예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과 무극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 권제사에 매우 적은 것은 권제일부터 권제삼까지와 권제사와 권제오의 문장과 글쓰기의 차이가 확연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서술에 있어서 같은 서적내에서 분명하게 전거를 드는 부분과 들지 않는 부분으로 대별된다는 것은 두 부분이 적어도 찬자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삼국유사』의 찬자는 일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한 논거가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⁸⁾

<표 5> 편목별 전거 유형별의 분포

卷次	篇目	고구려 존속시기	A	B	C	D	A'	B'	C'	합	
三國遺 事卷一	王曆 第一		(2)		(26)					(28)	47 57 66.2%
三國遺 事卷二	紀異卷 第一	18/36	14	6	16		5		6	47	
三國遺 事卷三	卷第二	3/4	2	3	2	2	1			10	10
三國遺 事卷四	卷第三	興法 第三 塔像	3/6 또는 11	3	1	2	1			18 7	25
三國遺 事卷五	卷第四	義解 第五	2/8		2					2	2
	卷第五	神呪 第六 感通 第七 避隱 第八 孝善 第九	1/3 0/2 1/3 0/1			1				1 1	2
			30	10	24	4	11	1	6	86	
			68 79.0%				18 20.9%				

- ④ ABCDA'B'C'의 전체 건수는 86건이다. 그 가운데 본문에 나온 고구려 관련 기사는 79.0%이며, 분주에 나온 것은 20.9%이다. 권으로 보던 기이 편에 66.2% 기타 권제삼, 권제사, 권제오에 33.7%로 분포되어 있다. 기이 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고구려 존속 시기의 내용인 기이권제일에 54.6%, 즉 절반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 ⑤ ③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전거가 없는 고구려 관련 기사 4개만이 CD, 즉 전거가 없는 기사만이 권제사, 권제오에 있을 뿐이다. 이 역시 무극기가 있는 권제사와 일연찬이 확실한 권제오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은 특기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이다.
- ⑥ 분주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가 있는 것은 기이편과 흥법제삼에 한정되어 권제삼 탐상 및 권제사, 권제오의 분주에는 단 하나의 고구려 관련 기사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28) 일연이 대표저자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님 혼자서 단독으로 저술했다는 견해는 무극기의 존재를 비롯한 『삼국유사』의 각종 문제점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의 내용을 다시 <표 1>의 분류방식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6> 전거 유형별 내용 분석

		본문	각주	합	
				개수	비율
A	전거○	30	11	41	52 60.4%
B		10	1	11	
C	전거×	24	6	30	34 39.5%
D		4	0	4	
합		68 79.0%	18 20.9%	86 100%	

<표 6>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특성을 추출해 볼 수 있었다.

- ① 고구려 관련 기사는 본문과 분주에 8:2 정도로 본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신라 및 백제 관련기사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삼국유사의 성격과 관련지어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전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면 6:4 정도로 전거가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삼국유사』에 소재한 고구려관련기사가 전거의 제시를 통해서 해당 기사의 신빙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므로 그다지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 ③ 고구려에 대한 본격적인 기사(AC 71건 82.5%)와 단순 나열(BD 15건 17.4%)을 비교해 보면 8:2 정도로 본격적인 기사가 우세하다. 이는 단순한 열거나 나열 등이 아닌 고구려와 관련된 기사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기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나열이라도 다른 국가도 아닌 고구려를 열거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러한 기사가 가지는 역사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황룡사구층탑에 적힌 국명가운데 나오는 고구려의 순서, 위상 등 역시 그러할 것이다.

<표 7> 전거별 인용횟수와 전거명

인용 횟수	총회 수	%		전거명	
				한국	중국
7회	7회	10.7	58.5	국사	
5회	5회	7.6		승전	
4회	12회	18.4		본전	후한서, 당서
3회	6회	9.2		고려본기, 고기	
2회	8회	12.3		삼국사, 본기	신당서, 당사
1회	27회	41.5	41.5	고려고기, 고전기, 단군기, 담시전, 동도성립기, 동명기, 삼국본사, 삼보감통록(고로전), 신라고기, 신라고전, 신라별기, 신라본기, 신지비사, 아도본비, 최치원, 해동안흥기	사기, 구당서, 군국지, 남서, 논어정의, 배구전, 삼국지지리지, 전한서, 주립전, 통전, 한서지리지
65		100%		23종 62.1%	14종 37.9%
37 종					

한편, 앞의 ②와 관련해서 전거로 인용된 그 명칭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는 소위 고기류로 보이는 고기, 신라고기 등이 같은 원전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전거를 별개의 사료로 보고²⁹⁾ 일단 분석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고 그 특성을 추출해 내면 다음과 같다.

29) 河廷龍, 1999.12, 『『三國遺事』所引 古記, 考, 『書誌學報』 23, 韓國書誌學會,

- ① 제일 많이 인용된 원전은 국사로 무려 7회나 인용되었다. 이것이 만약 2회 인용된 삼국사, 1회 인용된 삼국본사와 동일 서적이라면 무려 10회나 인용된 것이 된다.
- ②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원전은 승전이다. 대개 각훈의 해동고승전을 인용한 듯하다. 무려 5회나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 ③ ①②의 종합해 보면 국사와 승전을 12회(많게는 15회) 이상 인용한 것이 되는데, 이는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와³⁰⁾ 『해동고승전』에 대한 유사³¹⁾, 즉 빠진 이야기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반증해준다.
- ④ 위의 1회씩 인용된 원전 가운데는 신라고기, 신라고전, 신라별기, 신라본기, 아도본비, 최치원(『계원필경』) 등의 신라계 자료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신라고기 등은 신라계 원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신라의 기사를 적으면서 고구려의 관련기사 역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하튼 『삼국유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구려 관련 기사가 고구려계가 아닌 신라계 원전에서 출전하였다는 점은 『삼국유사』에 소재한 고구려관련기사의 사료적 한계점이 아닌가 싶다.
- ⑤ ④의 결과와는 달리, 의외로 고구려계 원전으로 보이는 고려고기는 단 1회만 인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서 고려고기 등을 참고할 때, 이미 고려고기의 내용은 고구려 관련 기사를 그다지 풍부하게 담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신라고기 등이 보다 자세한 고구려 관련 기사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미 13세기 이전에 존재한 고려고기 역시 신라 중심으로 재편된 시대상을 담은 고기로서 통일신라시대로부터 고려에 이르는 시기, 즉 삼국시대 고구려 존속기에는 편찬되지 않은 원전이 될 것이다. 또한 고구려 유민 등이 편찬한 것이 아닌 신라인이

30) 李康來, 1998.12. 本史와 遺事, 『月雲스님古稀紀念 佛敎學論叢』, 同論叢刊行委員會.

31) 남동신, 2007. 앞의 논문.

신라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편찬한 고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고려고기의 고려는 고구려로서 이미 멸망한 나라의 이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하튼 고구려와 관련된 전거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당시에는 고구려관련 원전이 거의 남지 않았기에 인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 ⑥ 고구려 관련 기사의 전거로 등장한 사서들을 정리해보면 6:4정도로 우리나라의 역사서들을 많이 인용했지만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계 사서들도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점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고구려를 이해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멸망한 나라인 고구려를 기술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구려계가 아닌 중국계 원전들에 의존했다는 점은 민족사서라는 측면에서 그리 반가운 사실은 아닐 듯싶다.
- ⑦ 본문 가운데 여러 번 서술한 바와 같이, 5세기 전반 이전의 고구려사 특히 국초로 보이는 시대의 고구려 관련 기사를 서술하면서 『삼국유사』는 한 번도 고구려계 원전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13세기 단계에 고구려계 원전은 거의 유전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고 사려 된다.

6. 맺음말

이와 같이 『삼국유사』에 소재한 고구려관련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삼국유사』의 원전론에 접근해 보았다. 그러한 구분과 분석의 결과를 요점만 들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거를 들고 있는 고구려 관련 기사는 일연찬이 확실해 보이는 신주제 육을 비롯한 권제오에는 한 건도 없다는 점과 무극기가 있는 권제사에는 거의 없다는 점은 문장과 글쓰기의 차이가 확연하다. 내용 서술에 있어서 전거를 드

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이 같은 찬자의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삼국유사』의 찬자는 일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둘째, 고구려 존속 시기인 삼국시대를 다루는 『삼국유사』의 내용 가운데 고구려 관련 기사가 나오는 조목은 전체조목가운데 무려 41.8~44.9%에 이르는 의외의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유사』는 신라사 못지않게 고구려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삼국유사』소재 고구려관련기사에서 국사와 승전을 12회 이상 인용한 것이 되는데, 이는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에 대한 유사 즉 빠진 이야기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와 상통된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찬술당시의 여러 서적들에 대한 유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정리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적절할 듯 하다.

넷째, 고구려관련기사 가운데 인용된 원전 가운데는 신라고기 등의 신라계 자료들이 적지 않으며, 40%정도가 중국사서들이다. 『삼국유사』소재 고구려 관련 기사가 고구려계가 아닌 신라계 원전에 더 의존했다는 것은 물론 사료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미 13세기단계에서 고구려계 원전은 유전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주제어 : 삼국유사, 일연, 무극, 후주, 원전, 고구려,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논문투고 : 2009. 11. 28, 논문심사완료 : 2009. 12. 2)

참고문헌

- 강인숙, 「구삼국사의 본기와 지」, 『력사과학』 4, 1985.
- 今西龍, 『신라사연구』, 국서간행회, 1970.
- 남동신, 「『三國遺事』의 史書로서의 特性」,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2007.
- 末松保和, 「舊三國史と三國史記」, 『칭구사초』 2, 笠井出版社, 1966.
- 박대재, 「『三國遺事』판본의 몇가지 문제점」, 『점교 삼국유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2.
- 손진태,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학풍』 2-1 : 1981, 『손진태선생전집』 6, 태학사, 1949.
- 申澄植, 『三國史記 研究』, 一潮閣, 1981.
- 이기백, 「삼국사기론」, 『문학과 지성』 26, 1976.
- 이만열, 「17~8세기의 사서와 고대사인식」, 『한국사연구』 10, 1974.
- 이우성, 「이조후기 근기학과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역사학보』 31, 1966.
- 조법중, 「고구려의 마한계승 인식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02, 1998.
- 津田左右吉,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津田左右吉全集 11 - 滿鮮地理研究』 1, 岩波書店, 1964.
- 坂本太郎, 「日本書紀の分註について」,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上, 동경대학교 출판부, 1978.
- 河廷龍, 「『三國遺事』最高本の 刊行時期—鶴山趙鍾業所藏古板本을 통한 接近—」, 『史學研究』 55-56, 韓國史學會, 1998. 9.
- 河廷龍, 「『三國遺事』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연구」, 2002. 8, 고려대학교 문학박사청구논문 : 『『三國遺事』史料批判』, 民族社, 2005. 8.
- 河廷龍, 『校勘譯註『三國遺事』—原本復原을 위한 三國遺事傳』, 時空社, 2003. 3.
- 河廷龍, 「『三國遺事』의 讚에對する一考察」, 『古代文化』 53-3, (財)古代學協會, 2001. 3.
- 李康來, 「本史와 遺事」, 『月雲스님古稀紀念 佛敎學論叢』, 同論叢刊行委員會, 1998. 12.
- 河廷龍, 「『三國遺事』所引「古記」, 考」, 『書誌學報』 23, 韓國書誌學會, 1999. 12.
- 하정용, 「日本帝紀와 日本帝記를 통해서 본 三國遺事 의 史料批判—延烏郎細烏女條와 元聖大王條의 後註를 중심으로 한 原典論—」, 『신라사학보』 12, 신라사학회, 2008. 4.

Regarding Goguryeo in *Samgukyusa*

Ha jeongyong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chapters about Goguryeo in *Samgukyusa*.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ing.

First, *Samgukyusa* is assumed to have a number of authors other than Ilyeon himself. It is proved by a fact that none of the articles regarding Goguryeo cites the authority in book 5, apparently written by Ilyeon, while only two articles are found in book 4, signed by Mugeuk. Difference in the verification of the reference can be an evidence for the possible existence of other authors of *Samgukyusa*.

Second, *Samgukyusa* can be considered a report on the history of Goguryeo as much as the history of Shilla. According to this study, 41.8-44.9% of *Samgukyusa* is about Goguryeo.

Third, *Samgukyusa* is supplementary to other history books of the times rather than to only one book. *Guksa* and *Seungjeon* are referred more than 12 times in *Samgukyusa*, which supports the argument that *Samgukyusa* is complementary to the missing story in *Guksa* and *Seungjeon*.

Fourth, in *Samgukyusa* most chapters dealing with the Goguryeo history

depend on the material from Shilla as well as the Chinese material which occupies 40%. This indicates that the archives of Goguryeo was not preserved in the 13th century.

Key Words : 『Samkukyusa』, Ilyeon, Mukeuk, after annotation, the original text, goguryo, 『Samkuksagi』, 『Haedonggoseongjeon』